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전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에배 7시30분
 수요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1월 6일 (제671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1533-9191 Fax. 021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1 763-9191 Fax. 0321 575-5730 http://www.jcc.tv (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럼

명품인생이 되자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아르마니... 명품들이다. 사람들은 명품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명품 하나쯤은 소유하고 싶어 한다. 하여 명품을 사기 위해 때론 해서는 안 될 일,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명품을 갖고 싶어 할까? 사실 그 물건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명품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신으면 내가 명품인생이 되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부유해 보이는 것 같아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건대, 어디 명품을 걸친다고 명품인생, 고귀한 인생이 되던가?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베토렌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남긴다. "아무 것도 아닌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라. 스스로 명품이 되도록 노력하고 실력을 갖추어 명품대우를 받도록 해라."

그렇다. 명품을 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시간에 명품인생이 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명품 옷이나 가방, 신발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는 노력해야 한다. 나만의 독자적인 것, 나만의 것을 찾아서 그 부분에 정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실력을 쌓는 것이다. 명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시간을 들여 어디에 내놓아도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남들이 사고 싶은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인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명품은 상품뿐 아니라 포장까지도 멋들어지기 때문이다. 명품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명품이 되자. 내 이름 석 자를 명품으로 만들자. 명품에는 후회 없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

먼저 사랑하는 교단의 모든 성도들과 땅 끝예수전도단 모든 회원들께 예수이름으로 문안을 드린다. 2013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이구아수 축포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기도한다.

2012년 12월 31일 저녁 10시 30분, KBS88체육관에서 송구영신예배가 전국과 전 세계에서 위성과 인터넷을 통하여 동시에 시작되었다.

총회장 목사님의 새해 첫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는 올해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아보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목회 28년 동안 못들을 소리도 참

말씀을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최고의 승인 믿음의 선전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단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도, 하갈과 그에게서 난 아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갈등하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번제단에서 충

순종하는 것, 부지런한 것, 억울한 중에도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적을 낳았고, '다 이루었다'는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최고의 스승에게 최선을 다해 배웠기에 그 분이 가진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것처



2013 신년축복성회(KBS 88체육관)

많이 들었고, 핍박과 환난도 역수로 많았지만 사실 그건 그다지 아프지 않았습니 다. 저를 정말 아프게 한 것은 '후회'였습니다. 28년을 반추하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픔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부모는 자신은 비록 개천에서 살더라도 자식만큼은 너른 강이나 바다에서 살기를 원하고, 참된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능가하는 업적을 남기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스승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동일한 마음이지기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분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야곱은 부지런의 대명사이자 도전정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인 에서에게 도전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의상촌 집으로 도망쳤으나 거기서 부지런히 일해 거부(巨富)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도 믿음의 한 획을 긋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한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 사랑의 대명사이자 역경 속에서도 인내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대신이라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결단을 하는 것,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를 최선으로 다하는 자가 되십시오." 송구영신예배에 연이어 신년축복성회가 계속 되었다. 하늘에서 마치 만나가 쏟아지듯 함박눈이 쏟아졌으나 성전은 성도들로 가득 찼다. 총회장 목사님은 우리의 삶이 피폐한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설교 후에 목사님은 병든 자들을 다 단에 올려 일일이 귀신을 내쫓으셨다. 귀먹은 자가 듣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등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났다. 진정 후회 없는 집회였다. 2013년,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가 지대함을 새삼 실감했다.

(다음 주에 계속)



자녀의 다운증후군을 일으킨 귀신을 쫓고 있다



단에 올라온 많은 병자들을 최선을 다해 안수해주셨다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 소리치며 또동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3:8)

우리 세상 끝 날까지 변하지 말자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1년을 결산하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왜 한 달 동안이나 작업하여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이 좀 오래 된 듯 하면 먹을 때 냄새를 맡아봅니다. 혹시 쉬지 않았나 하고 말합니다.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안심이다 했다가 쉰 음식을 먹고 똥통 당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말결산을 보여드린 것이 바로 어머니가 음식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냄새로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다면 이해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잡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쉰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맛이 간 음식은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걸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려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맛이 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취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앙에 맛이 간 사람은 하나님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맙니다.

‘맛이 갔다’고 하는 것은 곧 처음의 맛을 잃은 것을 말하고, 변질되어 못쓰게 된 것을 말합니다. 왜 요즘 이혼이 많습니까? 왜 기업이 도산하고, 왜 정치인들이 쇠고랑을 많이 잡니까? 또 왜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시끄럽습니까? 한 마디로 맛이 갔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맛이 갔고, 남편은 남편의 맛을

하시나이까”(삼상9:21)라고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이 되더니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15:11)고 말씀하시고는 그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재정을 담당시켰을 정도로 정말 신임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맛이 변하더니 스승인 예수님은 삼십 냥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곧 배창자가 터져 죽는 최후를 맞습니다. 솔로몬도 처음과 다르게 믿음이 변질되어 후대가 고통을 받았습

니다.
그러나 끝까지 맛을 잃지



많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 더욱 진한 맛을 내는 믿음의 선전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걸리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역시 삼십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들어간다는 금령 앞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서, 사자 굴에서 구원하셨고, 그 전보다 더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믿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여러분, 내 신앙에서 신내가 풀풀 나고 있는 건 아닌지, 막 쉬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있고요, 구역에배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글썽 냉장고에 들어있

는 음식도 상하더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안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맛이 꼭 제대로 라는 법이 없다가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열심만으로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구역에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수다 떨러 마실가는 건 아닌지, 남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건 아닌지 냄새를 맡아보아야 합니다. 냄새를 맡아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냄새가 좀 난다 싶으면 바로 끓여야 합니다.

맛이 가는 이유는 군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건 끓여야 괜찮아집니다. 어머니들이 음식이 상할 듯하면 센 불에 끓여놓는 이유가 그것

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군,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방지해놓으면 맛이 갑니다. 그래서 기도로 필필 끓여야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도,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이 상했을 때 버리면서 얼마나 아까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맛이 가서 버릴 때 아까워서 애달파하십니다. 가슴 아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한탄하셨습니다(창6:5-7).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도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마26:24)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다시 얻은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맛이 가서 버려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맛이 간 자가 되지 말고 맛이 든 자가 되자

아프시겠습니까?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을 버릴 때 마음과 비가겠습니까?

그러니 맛이 가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구역장 조장 일하다가 하기 싫어집니까? 맛이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끓이세요.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주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이 역시 맛이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세요. 목사가 기도에 게을러지고, 말씀 보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것 역시 맛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끓이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람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쫓대들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제2:4-5). 하나님이 당시는 목사로, 장모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구역장 조장으로, 성가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는 자는 절대 맛이 가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루디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하면 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제3:16)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씹습니다. 혹시 저를 목사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 봐 복음을 들고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량이 되지는 못할망정, 그 분이 후회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초심을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변질되지 않으려고 매일 나를 닦고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체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 끝 날까지 변하지 말고 함께 갑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서로를 자랑하고, 주님이 예비해놓은 면류관을 받으시다(약1:12). 맛이 간 자가 되지 말고 더욱 맛이 든 자가 되고, 변질된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가 되어 주를 위해 열심히 살시다. 할렐루야!

맛이 간 음식이 갈 곳은 오직 쓰레기통뿐이다

잃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고, 기업은 창립할 때의 맛을 잃었기 때문이고, 정치인들은 정치에 입문할 때의 맛을 잃었기 때문이며, 교회도 창립할 때의 맛이 잃었기 때문에 교회와 외장장 깨지는 것입니다. 맛이 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전 맛을 찾으려면 됩니다. 첫 마음, 첫사람을 찾으려면 됩니다.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신앙에 맛이 간 사람과 반대로 신앙에 맛이 든 사람으로 나뉘 집니다. 맛이 간 자를 보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사울이 손사래를 치며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

2013년 새해를 맞아 교단 목사님들의 새해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연재 기획코너를 마련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자



에서 황폐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전쟁과 약탈을 일삼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다. 그러나 에서와 달리 야곱은 오히려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고,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였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였고, 영적 소산이 풍부한 축복을 누

리게 하셨다. 이런 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했다(창 31:40). 야곱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철저히 순종한 결과다.

2012년 마지막 주일예배 때, 우리는 교단의 1년 활동을 정리하는 연말결산 행사를 보았다. 그것을 보자니 총회장 목사님의 1년은 연이은 강행군의 연속이었음을 실감했다. 눈 부상과 치료 중에도 해외집회가 6회, 국내행사가 14회로 위성에 나온 큰 행사만도 20회나 되었다. 나는 예배중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주께서 참 많이도 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일이면 교회로 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산으로 들로 해외로 향하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진다. 등산복을 야외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입을 정도라 길거리까지 가 올컬 단풍 같은 옷들이 알뜰달룩 하다. 그들의 마음도 교회와는 멀어져 알뜰달룩하다. 더욱이 믿는 이들까지 점점 세속화되어 함께 경쟁하듯 예배가 삶의 본질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것으로 여기고, 인간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

제구포신(陳舊刷新)은 '춘추화전'에 나오는 말로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는 뜻으로, 옛 사람들은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은 받아들이되 낡은 것의 가치도 다시 생각하고 새것의 폐단도 미리 보고자 했다. 이것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며 진정한 제구포신의 정신이 아닐까 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사람을 총성된 자와 수수방관하는 자와 방해만하는 자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자주 말씀하셨다. 2013년도 우리 교단의 표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이다. 정말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한없이 원 없이 총성되게 일해보자. 수수방관하는 자도, 방해하는 자도 아닌 총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보자. 2012년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여행 속으로 가버렸듯이 새해 또한 곧 그릴 것이다. 총성된 자로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 복을 끼쳤던 야곱처럼 되려면, 아버지 품 속 같은 루스를 하나님 품 속 같은 베엘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다(창28:13-19). 깊게 하나님과 대면하자. 더욱 깊게 뵈자. 진정한 제구포신으로 늘어서 죽기보다 살아서 죽기까지 새롭게 헌신하며 일하자(창47:9). 낡은 것은 제거하여 2013년을 한없이 원 없이 쓰시도록 내어 드리지.

부산예수중심교회 이규원목사

인생의 하프타임



축구에는 전반과 후반 사이에 대략 15분가량의 하프타임이라는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이때에는 모든 선수와 감독이 라커룸에 모여 열심히 땀과 지친 체력을 보충하기도 하고, 전반전 전술의 공과를 평가하기도 하며 남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비록 하프타임은 본 경기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충실히 활용하는 팀은 역전의 용사가 될 수도 있겠으나,

전반의 결과에 만족하여 후반의 준비를 소홀히 하는 팀은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실 수도 있는 일이다.

2010년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0.8세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40세를 전후하여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인생의 하프타임은 반드시 40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4당5락의 비장한 각오로 대입을 준비하였으나 낙방하여 재수의 길에 들어선 청년에게도, 자신의 일터에서 전성전력을 다하였으나 정년이 되어 은퇴를 앞둔 노년에게도 찾아드는 잠시 잠깐의 휴식기. 인생의 하프타임은 아마도 이런 것이라.

엘버트 아놀드 고어, 우리에게는 엘 고어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이 미국 정치인은 제45대 미국 부통령으로 당선되어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국정

에 참여하였다. 이때의 활약이 국민적 인기를 얻어 엘 고어는 2000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조지 부시에게 매우 근소한 차이로 석패하였다. 낙선 당시 급격한 체중증가와 건강악화 증세로 미루어 엘 고어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언뜻 인생의 게임 종료로 보일 수도 있는 좌절의 시기. 허나 그에게 이 시기는 전반 종료 후 하프타임 휴식기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미국의 부통령, 대통령 후보 낙선자의 인생이 엘 고어의 전반전이었다면, 그의 후반전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끊임없이 공론화하는 범지구적인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이었다.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에 참여하였으며 동명의 책도 출간하였음은 물론 기후프로젝트라는 NGO환경 단체를 설립하여 조직적, 자발적 세계 환경운동 참여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경기의 절반이 끝났는가? 낙담하지 마라. 곧 남은 경기의 절반이 시작된다. 안심하지도 마라. 상대는 역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곧 남은 경기의 절반이 시작되기 전에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어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감독 되신 예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듣고 뛰어라. 주님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U턴하라. 교만한 자는 겸손으로, 험기 있는 자는 온유로, 조급한 자는 오래 참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사랑으로, 게으른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정적인 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뛰려면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양주예수중심교회 강반석 목사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올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슬로건을 교단에 선포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뒤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들도 참으로 많은데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총회장 목사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만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을 아니 1분, 1초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을 멋진 인생과 신앙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 자신도 모르게 '내일 해야지'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올 연말에 우리는 또 후회하며 땅을 칠 것입니다. 내일은 내 능력 밖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다, 바로 지금이다' 라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산을 오르면 힘이 듭니다. 정상은 멀어 보이고 오르는 길이 가파르다 보니 숨이 턱에 차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든다고 다

음에 올라가야지 하면, 그 산은 평생 오를 수 없는 산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일을 내일로 미루었다면, 또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내일로 미루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와 같은 참대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단이 이처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총회장 목사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일에

전력투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니 지금 해야 한다며 일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일하기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내일로 미루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총성된 삶이요, 주님께 칭찬 받는 성도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천예수중심교회 담임 장영국 목사



며칠 전 TV에서 알코올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심리치료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몇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그중에 59세 되신 아주머니가 뒤늦게 깨닫고 지금까지 술로 보낸 세월이 너무나 아까워 후회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사도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가 갔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고,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인생과 얼마나 거리가 먼 인생이 되었을까?

크고 작은 후회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실컷 놀던 시절을 후회하기도 하고, 물질의 고통이 오면 좀 여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모아둘 걸 하는 후회, 건강을 잃고 건강할 때 주의하고 잘 관리했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 화가 나서 억제 못하고 퍼붓고 싸우고 난 뒤 허전함의 후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Good News

인도에 파송된 한 선교사는 그 곳에서 생활하던 중에 힌두교도 한 사람을 알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선교사가 개미집을 밟아버려서 본의 아니게 많은 개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힌두교도는 화들짝 놀라며 마치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까? 죽은 개미들 가운데는 우리 조상이 있을지도 모르

후회 없는 인생

::신년사::

жит 일생을 ஒ메이는 후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후회들이 많다.

하나님도 인간들을 만들고 죄악 속에 젖어 죄의식도 없이 사는 모습에 한탄하시더니 그 인간들을 아껴보지 않고 물로 쓸어버렸다. 유대나라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우시고도 훗날 변절되어가는 모습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버렸다.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아 귀히 쓰시다가 뒤에 반역하는 것을 보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안타까워하셨다. 목사님도 수없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때로는 교회로 크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도 하고, 말씀은 안하시지만 본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으시면 후회보다 더 큰 아픔은 없다고 말씀하실까?

나를 만들고 놓고 도운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못되더라도 그분들이 후회하지 않게 살 수는 없을까?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사람을 만났냐?”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복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될 수 없는 걸까?

올해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말씀을 주셨다. 무엇인데... 그는 율회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해하던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물어보았습니다. “모르고 저지른 실수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힌두교도는 한동안 말없이 죽은 개미만 바라보다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에게 용서를 빌면 됩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지혜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인간 해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해볼 걸’ 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해보다 실수해서 후회하는 것이 해보지도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해보는 후회는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 일을 이루는 길을 알게 되어 마침내 그 일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해보지 못한 것에 후회할 것 같으면 지금 해보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여 시작해보자.

노후 준비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다. 사후의 영원한 영생 앞에 이런 후회나 탄식이 어찌 없으랴. 후회 없는 그날을 위해 모세는 바로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주와 함께 가는 능욕의 길을 걸어갔고,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 주님도 그날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가셨다. 그리고 그날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다. 조금도 후회 없으신 말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 오늘날 그 좁은 길의 행렬은 세계 각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하여! 후회 없는 영생을 위하여!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

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요3:16).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법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상화평 목사

Q&A

Q: 천주교 신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영세(세례, 침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A: 천주교에서는 영세(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디에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요1:12).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례는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표시이지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았더라도 대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사제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죄가 계속되면 대죄로 변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고해성사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작은 죄와 큰 죄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자범죄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주의 종에게 죄를 사할 권한이 있습니다(요20:23). 그러나 꼭 사제를 통해야만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미래유망 직업

::Edu Section::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직업에 관하여 질문을 던져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같이 구태의연한 대답을 한다. 교사, 공무원, 판사, 검사, 의사 등의 전문직, 그리고 가수, 배우, 모델 등의 연예에 관련 직종, 혹은 수형, 피겨, 골프 등의 운동선수 등. 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직업의 종류는 400가지가 넘는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 자신의 미래 직업을 공리하고 구상해보아야 한다.

2011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10년 후 이공계 직업전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전가능성, 고용안정성, 직업

전문성, 보상, 근무여건, 고용현황, 고용평가 등 7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결과, 컴퓨터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전문가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결과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젊은이들의 과반수는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학과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컴퓨터 관련 산업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소중하고 고귀한 덕목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21세기 과학의 발달로 출대를 당하고 있는 인문학도 버려져서는 안 될 소중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다.

인문학, 특히 ‘문사철(文史哲)’이라 불리는 문학, 역사학,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인문학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며, 사실 들여다보면 매우 실용적인 학문으로 전공자 스스로가 자신

의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현실직접임과 동시에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학문이다.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장래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인문학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에 풍요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정신 건강과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문학과 관련된 직업군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진학을 준비하며 전공을 선택해야 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즉 지금부터 미래를 생각하고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의 힘을 무시하지는 말며, 인간의 소중함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환하게 빛나도록 해야 한다.

학원장 오자유 집사

